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9월 28일(수) 13:30
담당자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044-550-4376, swlee@kdi.re.kr) 이승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044-550-4259, sungjlee@kdi.re.kr)
배포일시	2016년 9월 28일(수) 10: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

- 발표 요약 -

- 일 시: 2016년 9월 28일(수) 10:00~16:30
- 장 소: 콘래드서울 그랜드볼룸(3층)
- 주 최: 기획재정부
- 주 관: KDI · 한국수출입은행 · KOTRA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는 9월 28일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 성과 공유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에는 유일호 부총리, 20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김준경 KDI 원장, KSP 협력대

상국 고위급 정책담당자, KSP 연구진, 국제기구 및 민간 개발 컨설팅 관계자, 기업인, 주한 외교 사절 등 350명의 관계자들이 참여, 2015~16년도 KSP 주요 성과와 정책 시사점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함.

- 또한 개발협력 담론으로 부상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연계 가능한 KSP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식공유가 SDGs달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정부, NGO 등 국제사회 내 다양한 활동주체와 지식공유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
- 허경욱 前 OECD 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KSP 대표성과 공유’ 세션에서는 멕시코, 케냐 및 필리핀 등 주요 협력 대상국 고위급 정책 담당자가 KSP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정책 시사점을 공유
- ‘국제기구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전략’ 세션에서는 국제기구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세부 전략을 발표하고 SDGs와 연계 가능한 KSP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
- ‘KSP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분과세션에서는 KSP 결과를 활용해 우리 민간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발표 요약**

❖ **첨부 1 프로그램** (한-영 동시통역 제공)

구 분	시간	세부 일정	
분과 세션	10:00 ~ 12:00	< KSP를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	
		베트남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성과 발표 ○ 기업진출환경 및 유망분야 소개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 프로젝트 소개 ○ 민간투자 및 조달정책 소개 ○ 질의응답 및 토론
오 찬			
개회식	13:30 ~ 13:35	개회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3:35 ~ 13:40	환영사	김준경 KDI 원장
	13:40 ~ 14:00	기조 연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의 KSP'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14:15 ~ 14:45	기자 회견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세션 1	< KSP 대표성과 공유 >		
	14:10 ~ 14:20	발표 1	○ KSP I : 정책자문 일반 마르타 나바로우 멕시코 외무부 국제개발협력국장
	14:20 ~ 14:30	발표 2	○ KSP II : 산업·투자 줄리어스 코리르 케냐 산업부 차관
	14:30 ~ 14:40	발표 3	○ 건설인프라 분야 정책자문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라울 크린시아 필리핀 교통부 차관
	14:40 ~ 14:50	발표 4	○ 모듈화사업 전반 및 SDGs 관련 사업 성과 김태종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세션 2	< 국제기구의 SDGs 이행 전략 >		
	15:20 ~ 15:35	발제 1	김완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본부장
	15:35 ~ 15:50	발제 2	올리비에 세라트 아시아개발은행 지식경영전문가
	15:50 ~ 16:05	발제 3	로빈 오길비 OECD 사무총장 자문관
	16:05 ~ 16:20	발제 4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전문가
	16:20 ~ 16:45	토론	김종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
16:45 ~ 17:00	Q&A		

❖ 첨부 2. 발표 요약

기조연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KSP'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KSP는 UN SDGs 달성을 효과적인 도구 될 수 있어

-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원제: The Great Escape)』 집필 전 KSP를 알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KSP가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 경제사적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원조보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생산 및 추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함.
- 개발도상국 역시 자금 지원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보다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새로운 지식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 있음.
-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지식을 현지 사정에 맞추는 회복 성장 (catch-up growth)이 중요한데 KSP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한국-개발도상국 양자간 협력으로 진행되는 KSP는 국가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용이함.
 - 차관을 전제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 사업과 비교했을 때, 조건적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장점이 있음.

- 한국은 『위대한 탈출 (원제: The Great Escape)』 을 대변할 수 있는 '챔피언' 국가임.
-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유례없는 1인당 소득 증가 및 기대 수명 증가를 기록함.
- 지식이 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에서, 한국은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축적한 지식을 통해 개발원조 분야 내 확실한 입지를 확보함.

세션 1. 2015~16년도 KSP 대표성과 공유

발표 1. KSP를 통한 한-멕시코 전략적 파트너십

마르타 나바로우 멕시코 외무부 국제개발협력국장

- 2012년 시작된 멕시코 KSP는 현재까지 총 18개 주제의 정책자문 진행
 - 멕시코 KSP는 연방정부 외 지방정부와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 국제개발협력국은 멕시코 내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KSP 수요 발굴, 비용 분담,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
- 2015~16년에는 풀리마주, 치와와주, 멕시코주, 교육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정책, 산학협력,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정책자문 사업이 추진
- 주요 성과
 - 멕시코 외교부: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 시 KDI-국제개발협력국 간 MOU체결
 - 멕시코주: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산학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멕시코 벨리 폴리텍대학 산학협력센터 카이(CAI) 개소
 - 치와와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부-중소기업 간 정책 도입
 - 풀리마주: 경제개발부와 테크노 파크 마스터플랜 수립

발표 2. 산업 및 투자진흥을 위한 케냐 KSP

줄리어스 코리르 케냐 산업부 차관

- 케냐 KPS는 2014년 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시작

- 이후 케냐 KSP를 통해 ① 산업정책 ② 산업 군 입지정책 ③ 케냐 산업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한국의 산업 복합단지 사례연구 ④ 경제 특별구역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 등에 관한 정책 자문 추진

- 케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투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한국의 사례 및 정책제언이 반영, 케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발표 3. 필리핀 건설 인프라 분야 KSP

라울 크린시아 필리핀 교통부 차관

- 필리핀 건설 인프라 분야 KSP는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항설비 안전성 확보 및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른 공항 수용성 확대를 위해 시행
 -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지원으로 공항 활주로, 승객 터미널, 긴급구호시설 건설 등이 추진
 - KSP를 통해 공항확장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전수

- 향후 필리핀 세부(CEBU)의 효율적인 컨테이너 운반처리정책 수립 및 항만 확장을 위한 정책자문이 추진될 예정
 - 현재 세부항은 선적화물 초과 수요 상태이며, 필리핀 세부는 새로운 항만 건설을 통해 해외 물류량을 확보, 분담해야 함.
 - 새로운 항만 건설은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물류 하역을 용이케 해 필리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발표 4. 모듈화 사업 전반 및 SDGs 연관 사업성과

김태종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KSP 모듈화 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사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창고를 구축함.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식창출(Knowledge Creation)과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추진
 - 2010~15년 총 144개 정책사례에 관한 모듈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3~14년 총 14개의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작

- SDGs 이행을 위한 모듈화 사업 활용 사례
 - (모듈화 연구 기반 온라인 공개강좌) 모듈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사례와 정책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MOOC 개설
 - (이러닝 콘텐츠) 세계은행 이러닝 플랫폼인 'Open Learning Campus'에 모듈화 이러닝 콘텐츠를 게재, 모듈화 연구의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세션 2. 국제기구의 SDGs 이행 전략

발제 1. 세계은행의 SDGs 이행 전략

김완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본부장

- 세계은행은 ①2030년까지 극심한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②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세계은행은 세계 빈곤 퇴치와 함께 모든 국가 하위 40%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UN SDGs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대·내외 개혁을 실시
- 세계은행은 자문사업, 기술지원, 역량강화사업, 오픈러닝(Open Learning)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해 SDGs 달성에 매우 중요한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대·내외 개혁을 통해 솔루션 은행(Solutions Bank)로의 도약을 준비
- 끝으로 세계은행은 SDG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①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 축적, ②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 ③컨설팅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대상국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 중

발제 2. 아시아개발은행과 SDGs

올리비에 세라트 아시아개발은행 지식경영전문가

- 아시아개발은행은 가용 재원을 활용,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골자로 하는 SDGs 달성을 위해 노력
 -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sia Development Fund: ADF)과 일반 개발재원 규모는 현재보다 약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개발은행의 '2016~18년 사업이행 전략 및 예산계획(Working Program and Budget Framework, 2016-2018)'에 따르면 국가우선순위와 아시아개발은행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아시아개발은행은 ①교육 및 보건 사업 확장, ②포괄적 성장과 기후 활동 사업 확장, ③민간부문으로의 사업 확장, ④민간협력 수요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
 -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기금에 자금을 조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맞는 SDGs 이행 지표를 제시

발제 3.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OECD의 전략

로빈 오길비 OECD 사무총장 자문관

- SDGs는 세계 모든 국가가 개발에 참여하는 의제를 포함함.
 -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구체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OECD는 UN의 인적자원개발, 개발재원조달, 환경 등의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기후변화사업 경험이 풍부해 UN의 2030 개발의제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OECD는 SDGs 달성을 위해 회원국 및 협력국가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표준화 사업, 정책 자문 사업 등을 수행